

朝鮮後期 佛教寺院建築의 傳統과 新潮流

— 佛殿 內部空間의 莊嚴을 중심으로 —

李 康 根*

차 례

I. 머리말	2. 莊嚴具
II. 佛殿 內部空間의 莊嚴	IV. 朝鮮後期 佛殿의 莊嚴
1. 莊嚴	1. 花嚴寺 極樂殿
2. 內部 莊嚴	2. 開巖寺 大雄寶殿
III. 高麗末 朝鮮前期 佛殿의 莊嚴	V. 맺음말
1. 建築 要素	

I. 머리말

현존하는 불교사원의 건물은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에 재건된 것이다. 따라서 高麗末期와 朝鮮前期의 건물은 20여 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으며 그 가운데 13채가 佛殿이다.¹⁾ 즉 고려시대의 佛殿 8채, 조선전기의 불전 5채가 남아 있고 그 중요성에 힘입어 조사 및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 불전들은 構造形式上 柱心包式 건물과 多包式 건물로 나누어지며 이는 다시 奉安 主尊佛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즉 주심포식 건물은 첫째, 阿彌陀淨土系의 無量壽殿(부석사), 極樂殿(봉정사, 성불사, 무위사), 둘째, 釋迦牟尼系의 大雄殿(수덕사, 고산사), 應眞殿(성불사), 靈山殿(은해사 거조암), 세째, 藥師淨土系의 藥師殿(관룡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다포식 불전은 普光殿(연탄 心源寺) 및 석가모니계의 대웅전(봉정사, 개심사), 응진전(석왕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²⁾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학육성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조교수

1) 40여 년간 繼續的으로 일어난 倭亂과 胡亂으로 인하여 전국의 사원이 대부분 소실되거나 대파되었다. 그런데 1530년에 정부의 광범위한 조사 끝에 출간된 『新增 東國輿地勝覽』 佛宇條에 의하면 당시 사원의 수가 1,712개 소나 되었으므로 山內 암자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000여 곳에 불전이 있었을 것이다.

2) 고려말기와 조선전기 목조건축의 양식을 주심포식과 다포식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고찰한 글로는 金東賢, 「韓國 木造建築의 樣式史」(『문화환경보전과 건축』, 도서출판 발언, 1993년, pp. 53~81.)가 있다. 한편 불전에 모셔진 佛像의 종류에 따라 불전에 담겨지는 정신적 내용 및 불교미술의 표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불전의

〈표 1〉 고려말 조선전기의 불전

신앙내용		구조형식		주 심 포		다 포	
		무량수전 극락전	대웅전 영산전 응진전	맞배	팔작	맞배	팔작
아미타정토계	무량수전 극락전	鳳停寺, 成佛寺, 無爲寺		浮石寺			
석가모니계	대웅전 영산전 응진전	修德寺 居祖庵 成佛寺	高山寺	開心寺 釋王寺	鳳停寺		
약사정토계	약사전	觀龍寺					
	보광전					心源寺(연탄)	

다른 한편 朝鮮後期에는 대웅전, 극락전, 보광전, 영산전, 응진전 등에 더하여 大寂光殿, 彌勒殿, 觀音殿, 圓通殿 등 보다 다양한 불전이 남아 있다. 현재 조사된 건물만 해도 17세기에 재건 혹은 창건된 건물이 30여 채에 이르며 18, 19세기의 불전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³⁾ 그동안 학계에서는 조선전기까지의 오래된 건물의 양식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여 왔고,⁴⁾ 조선 후기 건물에 대한 연구도 구조형식의 분류를 전제로 하여 공포에 표현된 시대양식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⁵⁾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불전에 표현된 정신적 내용이나 불교미술의 表現內容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종교미술의 연구에서 내용에 대한 연구가 지니는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 목조건물에서 공포가 樣式 연구에 기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불전 전체에 종교적 내

종류를 석가모니계, 비로사나계, 정토계(아미타계, 미륵계, 약사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양식의 문제도 그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이강근, 「조선후기의 불교사원건축」 『한국불교미술대전』 3권, 한국색채문화사, 1994. 5. “18세기에 편찬된 邑誌에 수록된 사원의 총수가 1,942개 소여서 오히려 조선전기보다 수가 늘어났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17, 18세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원의 재건 과정에서 그만큼의 불전이 새롭게 지어졌을 것이 분명하다.

4) 金東賢, 「李朝初期의 木造建築 樣式에 대하여(1)」 『한국의 고건축』 1, 1973.
張慶浩, 「이조초기의 목조건축 양식에 대하여(2)」 『한국의 고건축』 2, 1975.
장경호, 「고려, 조선의 목조건축」 『韓國美術史의 現況』, 도서출판 예경, 1992. 5., pp. 243~279.
김동현, 「한국 목조건축의 彫刻에 대한 고찰」 『무애 이광노교수 정년퇴임기념 건축학논총』, 동간행위원회, 1993. 8., pp. 55~74.
中西 章, 「斗栱形式からみた朝鮮多包系建築の變遷に關する研究」, 東京工業大學博士學位論文, 1986. 10.

5) 윤희상, 「임란 이후 조영된 사찰 본당의 공포배치 계획에 관한 연구」 및 「임란 이후 조영된 사찰 본당의 장식화 성향에 관한 연구」 『'88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 1988.

용을 표현하려 할 때 공포 역시 한 부분에 불과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양식 연구를 보완하고 종교건축으로서 불전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 내용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불전 내부의 장엄을 고찰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상식적인 이해로부터 출발하려 한다. 불전의 設計者가 僧侶라면 그는 불전에 담겨질 내용(설계조건, Architectural Program)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종교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실력을 다 발휘하려 할 것이다. 本尊佛像을 모실 위치와 크기, 봉안에 필요한 설비(佛壇, 後佛壁, 天蓋 등), 네 벽을 채울 불교미술(벽화, 탕화, 조각 등), 공포 사이의 小壁이나 천정의 上壁을 채울 그림과 천정에 표현될 조각 등은 人間世界의 모습(穢土)과 극명하게 구별되는 佛世界(淨土)의 모습을 담아내는 보조 장치로 고안될 것이다.

이러한 裝置를 빌어 표현된 정도의 모습은 불전 안으로 비추어 들어오는 빛의 명암에 따라 드러나거나 감추어질 것이므로, 불전 4면의 창호 배치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내부로의 출입과 禮佛행위가 儀禮에 맞게 자연스레 이루어지도록 창호를 배치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構造體로서의 건물은 외형적으로도 정도에나 있을 법한 화려한 寶殿으로 지어져야 한다. 공포의 出目數를 증가시켜 지붕을 높이고 안팎으로 돌출된 첨차에 연꽃, 당초, 봉황, 용 등 불교적 모티프의 식물이나 동물을 그리거나 조각하여 화려하게 장엄하고 특히 추녀 밑이나 정면 어칸 기둥 위에는 큰 용조각을 배치하여 불전을 극락의 연못에 떠 있는 龍船으로 보이도록 디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강조하지만 공포에서 읽혀지는 시대양식의 특징은 건물 전체의 형태 즉 內部空間의 형태와 외부의 彫塑的 形態 등에서 나타나는 시대양식의 일부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⁶⁾ 고려말 이래 조선전기까지 지속된 전통이 조선후기의 건축 재건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하나 전통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경향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공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다 넓은 문제로 시야를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내부공간의 장엄’도 전통과 신조류의 문제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으로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II. 佛殿 內部空間의 莊嚴

불전 내부를 設計할 때 그 목표는 어떻게 건물 내부를 정도의 모습에 彷彿하도록 만들어 내느냐에 있다. 佛壇이나 佛座 위에 앉아 대중을 내려다보며 佛法을 講說하고 있는 듯한 부처의 모습과 그 광경을 성공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조각, 그림, 공예의 힘을 빌어 내부를 장엄해야 하는 것이다.

6) 일찍이 Paul. Frankl은 스승인 Heinrich. Wöfflin의 樣式論을 극복하기 위해 建築形態論을 제창하고, 建築史의 완벽한 서술을 위한 체계로서 空間形態, 物體形態, 可視形態, 目的意圖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金光鉉 譯, 『建築形態의 原理』, 기문당, 1989.

그렇다면 장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莊嚴은 裝飾과 어떻게 다른가.

1. 莊嚴이란

佛敎에서 장엄이란 ‘華麗하고 嚴肅하게 裝飾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佛, 菩薩이 선행이나 덕성으로 자신을 장식하는 일, 둘째, 아름다운 물건으로 佛身(불상)을 장식하는 일, 셋째 아름다운 물건으로 佛國土(국가나 불전)를 장식하는 일 등을 가리킨다. 원래 장엄이라는 말은 첫째, 둘째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었으나 불교의 정착, 보급에 따라 불, 보살의 모습뿐 아니라 불, 보살의 住處인 불국토의 情景도 여러 가지로 상상하게 되자 그 화려한 장엄의 모습을 문학적, 예술적으로 표현하기에 이른다. 그 모습은 여러 經典에서 분명하게 보이는데, 『舊華嚴經』第一世間淨眼品에는 부처의 道場에 대해 “寶蓋와 幡蓋가 광명을 두루 비추고 妙香華만이 가득 둘러싸며, 칠보로 된 비단이 위를 덮고 보화가 비내리듯 하며, 寶樹의 꽃잎이 빛나는데, 땅은 넓고 嚴淨하여 광명이 두루 비추고 일체가 기이하고 특이한 妙寶로 가득차 있다.”고 기록하여 호사로운 淨土의 모습을 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 『觀無量壽經』 등의 經說에 입각하여 繪畫化된 각종 變相圖에 보이는 장려한 佛世界는 사람들의 정토에 대한 동경을 반영한 것이며 그 시기 정토관의 일부를 보여준다. 여기서 눈을 사원으로 돌려 보면 사원에 건립된 여러 殿閣도 또한 불세계의 이미지를 토대로 구축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즉 伽藍이나 불전은 불세계를 현실세계에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불전 내부가 여러 가지로 장식, 미화된 것은 불전 내부를 부처가 宴坐하고 있는 정토를 모방하여 장식하였기 때문이다.⁷⁾ 그런데 ‘불전 내부의 장엄’은 건축의 여러 요소 및 莊嚴具에 의해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2. 내부 장엄

이제 내부 장엄에 대해서 詳論하기로 하자. 내부 장엄에 동원되는 장치는 건축적인 것과 장엄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선 건축적인 것으로는 바닥, 벽체와 창호, 기둥(外陣柱, 內陣 高柱, 後佛壁柱)과 보(대들보, 종보, 도리, 장여, 장방, 평방, 중량, 우미량) 및 天章架構材 등의 건축 요소와 그 요소들의 구성방식이 장엄과 직결된다. 여기에 불상 봉안을 위해 佛壇, 補卓, 佛座, 天蓋(단집) 등 장엄구가 排設되고 주변의 벽과 천정 및 건축 부재는 그림과 조각으로 장엄된다.

7) 關根俊一, 「佛, 菩薩と堂内の莊嚴」, 日本の美術 No. 281, 至文堂, 1989. 10., pp. 17~18. 한편, 文明大, 「石窟庵 佛像彫刻의 研究」, 동국대박사학위논문, 1987. 에서는 『觀佛三昧海經』이 석굴암 조성시 所依經典이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불국사의 경우에 이른바 淨土三部經인 『無量壽經』, 『觀無量壽經』, 『阿彌陀經』이 사원건축 조성의 所依經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장엄을 하는 데는 시대와 所依經典에 따라 다른 法式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즉 조선후기보다 앞선 시대의 불전을 장엄하던 법식과 조선후기 불전의 장엄법식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극락전, 무량수전 등 아미타계의 전각과 대웅전 등 석가모니계의 전각 그리고 대적광전 등 비로사나계의 전각은 각각 다른 장엄법식에 근거하여 설계된 것은 아닐까.⁸⁾ 이제 건축요소, 장엄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Ⅲ. 高麗末 朝鮮前期 佛殿의 莊嚴

조선후기에 건립된 불전은 건축양식 및 내부공간의 장엄법식을 앞 시대로부터 계승하고 있음과 아울러 조선후기라고 하는 시간상의 흐름에 대응하는 새로운 변화상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 시대의 전통이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여기서는 ‘내부공간의 장엄’에 초점을 맞추되 건축적 요소와 장엄구로 나누어 고려말 조선전기의 전통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자 한다.

1. 建築的 要素

1) 바닥과 평면

불전의 바닥은 전돌이나 마루를 깔아 만든다. 예외적으로 석굴암, 감은사 금당, 중원 미륵리석굴처럼 바닥이 석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전돌과 마루널을 깔아 내부공간의 바닥면을 구성하였다. 전돌을 깔 것이 확인된 불전으로는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조사당, 수덕사 대웅전,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장곡사 상대웅전 등 고려시대 건물과 무위사 극락전, 화엄사 각황전 등 조선시대 건물이 있다. 이밖에 불국사 講堂址, 毘盧殿址 및 觀音殿址에서도 전돌이 확인되었다. 즉 통일신라시대 이래 조선전기에 이르는 불전의 내부는 원래 바닥에 전돌을 깔고 그 위에 석조나 목조의 불좌, 불단을 설치한 것으로 여겨지며,⁹⁾ 조선전기의 언제인가부터 서서히 마루가 바

8) 내부공간의 장엄법식의 문제에 대하여 국내 학계의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사원 벽화에 대한 다음의 연구가 이 문제를 따져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박도화, 「한국불교벽화의 연구」 『불교미술』 6, 동국대학교박물관, 1981. 9., pp. 89~113.

박도화, 「조선조의 사원벽화」 『한국의 미 16』, 중앙일보사, 1984.

9) 고대 이래 불전 내부의 바닥은 모두 전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발굴조사에 의해 밝혀진 예로는 황룡사 금당지 및 불국사 강당, 비로전, 관음전 등의 터가 있다. 그런데 金正基, 金東賢, 申榮勳, 「佛國寺發掘調査概要」 『考古美術』 104호, 1969년 12월, pp. 6~9.에 의하면 1969년에 있었던 발굴조사 과정에서 비로전과 관음전터 위에 설치된 석조 불단(조사자들은 불단 대석으로 봄)이 드러났었다고 한다. 현재 복원된 비로전 내부의 목조 불단 하부에는 원래의 석조 불단이 노출된 채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에 채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위 건물 중에서도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무위사 극락전 등에는 後補된 마루가 깔려 있으며,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의 경우 바닥 전체를 전돌로 깔고 나서 불단 앞 한 칸에만 한 단 높여 마루를 깔아서 마루 사용의 先例를 보여주며 과도기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조선후기의 예로는 法住寺 捌相殿(1628년)과 華嚴寺 覺皇殿이 바닥 전체를 전돌로 깔고 있어서 傳來의 전통을 계승함과 아울러 내부에서의 예불행위를 위하여 이동식 나무 깔판을 설치하고 있어서 주목된다.¹⁰⁾

바닥이 전돌인가 마루인가 하는 문제는 불전 내부의 활동에 차이가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바닥이 전돌인 경우는 불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예불을 행하거나,¹¹⁾ 아니면 불전 내부에 보조 기구를 놓고 예불을 행했을 것이다. 아마 불전 내부의 불상 앞에서 행해지는 儀式이 발달하고 불전 안에서의 범회가 많아지면서 내부의 바닥도 주거 공간처럼 마루를 깔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¹²⁾ 재건된 불전의 경우 법주사 팔당전, 화엄사 각황전 등 몇몇 건물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의 내부에 마루가 깔리게 되는 것은 17세기에 보편화된 현상임이 분명하다.

한편 바닥의 평면 구성을 보면 황룡사 중앙 금당,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圖 16), 무위사 극락전(圖 28) 등에서 보듯 조선전기까지는 불단이나 불좌가 위치한 부분을 한 단 높여 조성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재건된 많은 건물들은 바닥을 마루로 조성함과 아울러 불단 하부 바닥도 마루와 같은 높이로 처리하였다. 황룡사 중앙 금당의 경우 內陣을 북벽(후불벽), 동서 측벽 및 정면 동서 兩端 한칸벽으로 막아 外陣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구성을 하고 있는데,¹³⁾ 이러한 고대 불전건축 이래의 전통은 부석사 무량수전(圖 6)이나 수덕사 대웅전(圖 11),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의 內陣 高柱 配置法에 계승되어 고려시대까지는 내진과 외진을 엄격하게 구분하려는 경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말기에 이미 이러한 평면 구성은 봉정사 극락전(圖 2), 봉정사 대웅전, 심원사 보광전

10) 팔상전에 대해서는 김동현, 「법주사 통신」 『고고미술』 100호, p. 463 참조.

각황전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 『화엄사 실측조사보고서』, 1986년, p. 284에 실린 중수전 평면도 참조.

11) 불전 외부의 마당이나 석등 앞에 놓여 있는 拜禮石에 주목하여 이곳에서 예불 의례가 행해졌으리라고 보는 연구가 있어서 주목된다.

12) 金奉烈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고려조까지의 불전은 승려층의 의식을 위한 공간이었으며 반면 조선시대의 의식은 일반 신도까지 불전의 출입이 가능하며 의식보다는 설법을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불단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이러한 지적이 어느 정도 옳다면 불전 내부 바닥의 변화 원인도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선원사비로전단청기」에 의하면 1325년에 비로전을 넓힌 목적이 중을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이며 이때 마루바닥이었음을 밝히고 있어서 이미 고려말기에는 불전 내부에 마루를 깔기도 하였으며 120~130명의 승려가 범회를 열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내부 출입자가 승려만인가 아니면 일반신도인가의 구분으로 바닥의 변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선종사원에서는 교종사원의 金堂을 佛殿, 講堂을 法堂으로 불렀으며, 법당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 불전 안에서 예불과 범회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므로 불전 내부 바닥의 변화 원인을 생각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13) 金東賢, 「皇龍寺의 建築計劃に關する 研究」, 東京大學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p. 72.

(圖 19)처럼 중앙칸 후면에만 고주를 세우거나 무위사 극락전처럼 아예 고주를 세우지 않은 채 불단을 그 앞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그 결과 불상 앞쪽에 넓은 공간이 확보된다.¹⁴⁾ 물론 불단 앞쪽의 기둥을 생략하는 減柱法이 구조적으로 발전한 데 힘입어 이러한 변화가 가능해졌을 것이다.¹⁵⁾ 조선후기 불전의 평면구성은 거의 後面高柱 배치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거의 예외없이 굵은 대들보와 衝樑을 사용하고 있다.

2) 벽과 창호의 구성

벽과 창호의 조화로운 구성은 외부 형태를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일뿐만 아니라, 내부공간에 빛을 공급하는 창과 내부에 벽화를 그리거나 탕화를 걸 벽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불전 자체를 폐쇄적인 龕室로 만들던 고대 이래의 전통은 고려말기의 봉정사 극락전,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부석사 조사당 등에도 계승되어 살창을 통해 들어 온 빛이 바닥에 반사되어 어두운 내부공간 속에서 은연 중에 불상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계획되었다.¹⁶⁾

봉정사 극락전(圖 1)의 경우 정면 및 배면 가운데 칸에 관장문을 달고, 정면 좌우 협칸에 세살창을 설치하였으며 측면을 비롯한 나머지 모든 벽면으로 처리하였다.¹⁷⁾ 부석사 조사당은 배면과 양 측면을 완전히 막고 정면에만 어칸에 2짝 띠살문을 달고 좌우 협칸에는 세살창을 설치하였다. 또 거조암 영산전(圖 13, 14)의 경우 정면 어칸에만 3짝 정자살문을 달고, 측면 어칸과 정면 좌우 네 칸, 배면 어칸에 세살창을 두어 환기와 채광에 대비하였다. 그 결과 내부는 측면으로부터도 빛을 받아 거대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밝은 느낌마저 주고 있다.

위에 든 세 건물을 제외하면 고려말 이래의 건물은 대부분 부석사 무량수전(圖 5, 7), 수덕사 대웅전(圖 9, 10), 장곡사 상대웅전, 관룡사 약사전처럼 정면 전체를 문살 분합문으로 구성하여 내부에 충분한 밝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측면에도 앞퇴칸에 외쪽문을 달아 출입, 환기, 채광에 활용하도록 구성하였다. 배면 어칸에 관장문을 단 경우(무위사 극락전)와 살문을 단 경우(개심사 대웅전)도 있으나 아직 측면 어칸, 후퇴칸 및 배면 좌우 협칸 등에는 문살문을 설치하고 있지 않다.

14) 金東賢, 「韓國木造建築의 樣式史」, 앞 책, p. 61, p. 73.

15) 柱列과 梁架를 일치시키지 않거나, 減柱法이나 移柱法을 창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元代 木造建築의 특징이라고 한다. (金東賢, 「元代的 木造建築에 대하여」 『昌山 金正基博士 華甲記念論叢』, 동간행위원회, 1990. 3.)

16) 南天祐는 석굴암에도 연도 위쪽에 光窓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들어 오는 빛이 내부 바닥에 반사되어 본존 불상의 상호를 은은하게 비추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석굴암에서 망각되어 있는 고도의 신라 과학」 『진단학보』 32, 1971년) 이러한 추정을 따른다면 전실은 2층 건물이었을 것이다.

(문명대, 「석굴암 불상조각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년, p. 29 주 48.)

17) 1972년에 해체 실측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에 건물 전면 3칸에 띠살4분합문이 있었으나 어칸에 信枋木과 信枋石이 노출되어 판문 형태의 출입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좌우 협칸에는 인방에 남아 있는 흠으로 보아 당초에는 살창이 있었던 건물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1974년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복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재관리국, 『鳳停寺 極樂殿 修理工事報告書』, 1992년, pp. 43~46.)

조선전기에는 龕室形 佛殿에서 벗어나 4면을 최대한 개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게 되는데, 봉정사 대웅전의 경우 좌우 측면 어칸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 창호를 설치하여 내부공간을 보다 개방적으로 조성하였다. 다만 정면 모두와 측면의 전후 퇴칸에 문살문을 설치한 반면 배면에는 3칸 모두에 판장문을 설치하여 아직도 뒷면은 감실형 불전의 옛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 건물은 이제 측면 어칸에만 불화를 조성할 수 있을 뿐, 나머지 칸의 창호에서 투과되어 오는 빛때문에 한층 밝아진 내부 공간을 갖게 되었다.

조선후기의 많은 불전들은 봉정사 대웅전의 개방적 구성을 본받아 배면에까지 문살 있는 창호를 설치하게 된다. 4면에 모두 창호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향도 조선후기에 일반화된다. 이제 조선후기의 불전은 전통적인 감실형의 폐쇄적 구성(평면, 입면 모두)을 버리고 개방적 구성을 갖게 되어, 넓고 환한 불전 내부에서 禮佛할 수 있는 건물로 변화되었다. 천정까지도 환하게 밝은 정도여서 거기에 표현된 그림이나 단청의 문양들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천정부부의 공포벽이나 상벽에 여러 가지 圖像의 그림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공포 상부에 정교하게 깎은 조각을 배치하는 것도 이때에 와서 일반화된 현상이다. 물론 조선후기 불전 가운데도 대비사 대웅전, 성혈사 나한전, 전등사 약사전처럼 감실형 구성에 가까운 폐쇄적 평면을 가진 예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한편 창호의 문살도 정자살문(부석사 무량수전, 거조암 영산전), 띠살문(부석사 조사당), 빗살문(수덕사 대웅전, 개심사 대웅전, 고산사 대웅전), 소슬빗살문(무위사 극락전) 등 기본적인 문살문에서 벗어나 조선후기에는 기본 문살 여러 가지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문짝을 구성하거나, 기본 문살 위에 꽃이나 연못의 정경 등을 표현(내소사 대웅보전, 불갑사 대웅전, 성혈사 나한전 등)하여 불전 외부를 장엄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렇듯 벽과 창호의 구성이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는 것은 내부공간의 성격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벽화나 탕화의 배치법식도 바뀌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제까지 문제삼은 周壁 이외에도 공포 사이에 형성된 小壁, 천정의 층급 부분에 형성된 上壁 등에 그려진 그림의 내용과 형식은 불전 건립 당시의 시대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3) 後佛壁 및 高柱

후불벽이란 불전 중앙부에 봉안된 本尊佛像의 바로 뒤에 설치한 일종의 간막이벽을 말한다. 불전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봉안된 불상의 구성과 불단의 크기에 따라서 후불벽은 1칸(정면 3칸인 불전의 대부분), 3칸(정면 5칸인 불전이나 정면 3칸인 불전), 5칸(정면 7칸인 각황전같은 대규모 불전) 규모로 설치된다. 현존하는 불전에서는 후불벽만이 後面高柱¹⁸⁾ 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나, 古

18) 배병선은 내부 고주를 기능에 따라 불벽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佛壁高柱, 퇴칸을 만들기 위한 退高柱, 중앙에 위치한 分心高柱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多包系 맞배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代 佛殿에서는 내부에 內陣柱를 빠짐없이 세워 평면을 內陣과 外陣으로 나누고, 內陣柱 사이에는 후면, 측면, 전면 양끝에 벽을 세워 외진과 구별되는 독립된 폐쇄형 감실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리라고 생각되고 있다.¹⁹⁾ 불전 내부에 다시 한 겹의 벽을 둘러 막아 중심부를 형성하는 폐쇄적인 평면구성에서 후벽만을 설치하고 전면과 측면을 완전히 개방하는 평면구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진행되었으리라고 여겨진다. 더구나 이러한 변화는 불전 내부 기능의 시대에 따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불전인 봉정사 극락전(圖 2, 3)은 내진주를 둘러 세우지 않고 후면 고주만을 세워 후불벽을 설치하고 있어서 고려말에는 이미 후불벽만으로 평면을 앞뒤 두 부분으로 양분하는 개방적 평면구성을 채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석사 무량수전(圖 6, 7), 수덕사 대웅전(圖 11, 12), 거조암 영산전(圖 15, 16) 등은 내진주를 둘러 세우기는 하였으나 내진 어칸 1칸에 후불벽을 설치하거나(무량수전, 영산전) 아예 후불벽을 두지 않고 있다(대웅전). 또 고려말의 다포계 팔각집인 심원사 보광전도 후면고주 사이에 후불벽을 설치하였다.

한편 조선초기에는 후면고주 사이에 후불벽을 설치하거나(봉정사 대웅전<圖 31, 32>), 아예 후면고주를 세우지 않은 채 불단에 기대어 얇은 벽을 가설하였다(무위사 극락전<圖 26, 27>, 개심사 대웅전<圖 22>). 봉정사 대웅전은 앞서의 건물들이 모두 후면고주의 위치를 側面柱列에 맞추어 正置시키고 있는 것과 달리, 후면고주를 약간 뒤로 移柱시키고 있어서 주목된다. 고주를 뒤로 물림에 따라 후불벽 앞쪽의 공간은 한층 더 넓어지고, 후불벽과 좌우 周壁이 불상 앞쪽의 공간을 감싸고 있는 듯한 구성이 된다. 후불벽 뒷면 공간은 좁아져서 요잡행위를 하기에다 부족하다. 그 결과 이곳은 점차 수장용 공간으로 변질되어 간다. 그러나 후불벽의 뒷면에 무위사 극락전에서처럼 禮佛用 白衣觀音菩薩圖를 그리는 전통이 조선후기로 이어져서 후불벽이 뒤로 후퇴하는 경향을 일면 늦추기도 하였다.²⁰⁾

문, 1993., p. 124.) 한편 일본 학계에서는 불벽고주를 來迎柱, 불벽을 來迎壁이라 부르고 있다.

19) 金東賢, 「皇龍寺の建築計劃に關する研究」, 東京大學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12., p. 72. 에서는 황룡사 금당의 내진이 정면 중앙부를 제외하고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내진 안에는 현존하는 대좌석으로 미루어 보아 석가삼존불을 중심으로 10대제자상, 사천왕상, 인왕상이 입상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화엄사 각황전의 경우 이른바 重修前 평면도 (『구례 화엄사 실측조사 보고서』, p. 284)에 의하면 평면구성은 외진부(觀佛禮拜空間), 내진부, 봉안부의 3겹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진주 초석에 하방을 끼웠던 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내진주 사이에 벽이 사방으로 둘러 서고 내진 정면 어칸에 문을 설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봉안 공간 안에는 3개의 장방형 불단 대석이 놓여 있어서 장육삼존상을 봉안했음에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각황전은 1701년에 재건되면서 제3고주열에 후불벽을 세우고, 그 앞에 정면 5칸, 측면 1칸에 이르는 장대한 크기의 장방형 불단을 설치하는 등 조선중기 이후의 장엄법식을 따르게 되었다.

20) 白衣觀音菩薩圖 등 관음보살 그림을 후불벽 뒷면에 그린 예는 무위사극락전, 금산사대적광전, 위봉사보광명전, 여수 흥국사대웅전, 내소사대웅보전, 마곡사대광보전, 선운사대웅전, 관룡사대웅전, 운문사대웅전, 신흥사대광명전 등이다. 오세례, 「조선시대 후불벽이면 백의관음도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3.)

조선후기의 불전은 대부분 후면고주만을 세워 후불벽을 막고 그 앞에 후불벽의 폭과 같거나 더 넓은 佛壇을 설치하였다. 또 고주의 위치를 뒤로 물린 건물도 전체의 1/3 이상에 이른다.²¹⁾ 후불벽에는 예외없이 벽화 대신 탱화를 걸어 놓았으며, 불단은 木造로 높고 크게 만들어 그 위에 목조 불좌 위에 앉은 불상을 봉안하고 있다.

4) 공포와 包壁, 上壁, 천정

佛殿은 많은 수의 공포를 사용하여 높고 넓게 지붕을 받치고 선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공포 자체의 모양새나 짜임새, 거기에 베풀어진 단청의 색채와 무늬 등에서 우리나라는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인해 인간세계가 아닌 彼岸의 세계(정토)에 있으리라고 상상된 寶殿을 연상시킨다. 또 포와 포 사이에 있는 小壁에는 불좌상, 나한상, 供養花, 奏樂飛天 등을 배치하여 불전 안팎을 장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공포나 포벽이 발휘하는 美觀上의 효과는 지붕 형태 및 천정 형태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고려말의 주심포맞배집 불전(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거조암 영산전<圖 14>)은 내부 지붕가구를 노출시킨 연등천정으로 되어 있다. 외부 공포는 처마 그늘 밑에 감추어져 침차의 세부적인 彫刻術이 비교적 드러나지 않고, 내부 공포는 지붕가구를 이루고 있는 크고 굵은 부재들에 위축되어 연결요소로 인식되는 정도이다. 다만 공포와 공포 사이의 가로로 긴 小壁은 벽화를 그려 넣기에 적절하여 건물 외부의 미관을 꾸미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²²⁾ 그러나 이 불전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외부에서는 측벽 가구의 짜임새와 架構材 사이에 그려진 벽화에서 찾을 수 있고, 내부에서는 지붕가구의 짜임새 및 디테일의 장식에서 찾을 수 있다.

주심포팔작집 불전의 경우(부석사 무량수전<圖 7>)에는 네 귀의 추녀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공포와 포벽이 흰하게 드러나 보이므로 기둥에서 나뭇가지처럼 퍼져 올라간 듯한 공포의 짜임새와 침차의 조각적 형태가 아름답게 보인다. 소침차 위에 대침차를 얹고 그 위에 장여를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공포를 짜올렸기 때문에 포벽의 높이는 90cm나 되어 앞의 주심포맞배집 불전의 포벽 높이의 2배나 된다. 이곳에 어떤 주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같은 절의 조사당에 그려져 있던 현존 최고의 사원 벽화의 품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뛰어난 솜씨로 비천도나 불상, 나한상 등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며 처마와 추녀를 치켜 올린 탓으로 극적인 장엄 효과를 발휘했을

문, 1990.) 참조. 그러나 백의관음도를 후불벽이면에 벽화로 그리지 않고, 탱화로 조성하여 내부 向右壁에 거는 경우(금강산 도솔암 彌陀殿)도 있다. (許筠, 『성소부부고』 제 16권)

21) 배병선, 앞 글, pp. 122~123, p. 143, p. 149, p. 155, p. 158, p. 168 등의 도표 참조.

22) 수덕사 대웅전의 경우 다행히 원래의 벽화 배치 상황을 기록해 둔 자료가 남아 있는데, 정면과 배면의 공포 사이 소벽에는 飛天奏樂圖와 小佛五禮圖를 그렸음을 알 수 있다. 林泉, 「修德寺 大雄殿의 壁畫」, 『美術資料』 제2호, 1960., pp. 21~23.

것이다. 불전 내부의 공포는 기둥머리와 대들보 및 퇴보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고, 포벽은 아래로는 周壁과 수직으로 연결되어 벽의 높이를 증가시키고, 위로는 경사져 내려오는 연등천정과 만난다. 즉 벽과 천정이 분명하게 分節되어 있고 그 마디에 주심도리가 가로 놓여 있다. 벽과 천정의 이러한 구성은 주심포팔작집과 주심포맞배집 모두에서 보이며, 조선전기의 무위사 극락전(〈圖 27〉, 맞배집), 고산사 대웅전(팔작집)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다포계맞배집 불전의 경우(조선초기 개심사 대웅전〈圖 24〉)에는 주심포식보다 출목수를 늘려 처마를 들어 올리듯이 받치고 있어서 외부공포의 형태가 正面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공간포를 배열함에 따라 공포 간격이 좁아지고 포벽은 평방 윗면과 두공침차의 윤곽선을 이은 삼각형 구도의 소벽으로 만들어진다. 이곳에는 佛坐像을 그려 불전 안팎을 운동 化佛로 장엄하고 있다. 불전 내부의 공포는 사이에 포벽을 남기면서 뺀어 올라가 柱心에서는 대들보를 받치고, 柱間에서는 장여를 받쳐 가로방향으로만 긴 천정을 이룬다. 장여 위에는 공포 배열에 맞추어 花盤을 배치하여, 지붕 가구를 노출시킨 채 경사져 내려오는 천정을 받친 하중도리와 받침장여를 떠받쳐 준다. 이렇게 해서 주심포집에서는 없었던 초기적인 層級天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다포계팔작집 불전에서뿐만 아니라 다포계맞배집 불전에서도 층급천정이 일반화된다.

다포팔작집의 경우(봉정사 대웅전〈圖 30〉) 4면에 고루 공포를 배열하기 때문에 조선초기 다포계맞배집에서 나타난 포벽, 포벽 위 순간천정 및 상벽이 빙 둘러 지붕가구의 하단부를 형성한다. 포벽과 상벽에는 모두 화불을 그리고 있다. 상벽 위에는 후보된 것이기는 하나²³⁾ 소란반자로 짠天井이 전체적으로 가설되어 있어서 내부공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 복잡, 정교하게 結構되어 있는 지붕가구는 반자 뒤로 감추어져 버려 더이상 불전의 내부공간에 속하지 않게 된다. 공포는 마치 원래부터 반자를 받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벽과 천정이 직각으로 만나 형성된 내부공간은 劇的이기보다는 편안한 느낌을 주어 불전 내부라기보다는 큰 방안같이 여겨진다. 조선초기의 주심포집 불전인 무위사 극락전은 불단 상부 대들보 위에만 천정을 설치하여, 연등천정과 우물천정을 조합한 천정을 지닌 불전 내부의 공간적 분위기를 잘 보여 준다. 조선전기 주심포팔작집 불전인 고산사 대웅전은 부석사 무량수전과 마찬가지로 포벽과 경사져 내려오는 서까래가 만나도록 되어 있으나, 지붕 중앙부에 우물천정을 가설하여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조선후기 불전의 주류인 다포계팔작집 불전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된 공포, 포벽, 상벽, 다양한 천정 구성 등을 보이게 된다.

5) 架構

기둥과 방(창방, 평방)으로 하부구조를 짜맞춘 다음 그 위에 공포를 놓고 이 위에 다시 보(대들

23) 무위사 극락전, 봉정사 대웅전, 송광사 국사전 등 조선초기 불전 내부의 우물천장은 원래 없던 것을 後補한 것으로 보인다. 金東賢, 「한국 목조건축의 양식사」, 앞 책, p. 63, p. 73.

보, 퇴보, 층량, 우미량 등), 도리(주심도리, 중도리, 마루도리 등), 장여 및 臺工으로 상부구조인 지붕틀을 짠다. 지붕 모양에 따라 가구를 짜는 법도 다르게 마련인데 내부에서 지붕가구가 다 드러나는 연등천정의 경우 부재의 만듬새와 짜임새 및 부재에 치장된 조각이나 단청은 불전 내부의 장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고려말의 주심포계맞배집 불전의 경우 봉정사 극락전(圖 2)을 보면 側壁架構와 內部架構가 다르다. 측벽에는 중앙 고주를 세워 중도리를 받치고 대들보, 종보 및 좌우 고주 창방을 이 고주에 끼웠고, 평주 창방은 좌우 고주에 끼웠다. 솥을합장과 草枋을 써서 더욱 튼튼하게 측벽을 보강하였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후면 고주를 세워 거기에 뜬창방과 장여를 짜맞추어 도리방향으로 연결하고, 또 측벽 前退高柱 위 대들보 상면에 장여를 얹어 반대편 측벽까지 도리방향으로 연결하였다. 단, 대들보 위의 지붕가구는 측벽과 내부가 동일하다. 이 불전의 지붕가구에서 특히 주목되는 장엄적 요소는 불꽃모양의 花盤인데 도리방향으로 창방과 장여 사이, 보방향으로 대들보와 繫樑 사이에 배열되어 있다. 그러나 가구 부재의 디테일에서만 花頭飾과 같은 장식적 처리가 엿보일뿐, 부재의 형태를 식물문이나 동물문같은 형태로 조각하려는 시도는 없으며 다만 화려한 꽃바탕 무늬 사이에 용, 코끼리(보살이 도솔천에서 타고 내려왔다는 六牙白象임), 사자 등을 그린 단청을 모든 부재에 채색하고 있다.²⁴⁾

수덕사 대웅전(圖 11)은 측벽가구와 내부가구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측벽의 보강을 위해 보방향으로 평주와 평주 사이, 고주와 고주 사이에 창방을 걸치고 또 대들보 위에 우미량을 받치는 계량을 걸쳐 놓은 점, 고주 사이에 細長한 角柱를 세운 점 등이 내부가구와 다른 점이다. 내부에는 앞뒤에 고주를 세우고 그 사이에 도리방향으로 창방과 장여를 가로질러 전후 퇴칸천정과 내진천정을 분절하였다. 이 건물의 가구에서 특별히 장엄 요소로 쓰인 것은 아름답게 透刻한 花盤과 1/4원호를 그리며 마치 폭포수 형태로 아래쪽으로 연결된 우미량이다. 이 가운데 우미량은 경사진 노출 천정을 부드럽게 받치면서 마치 둥근천정인듯 보이게 한다. 화반은 정토의 하늘을 꽃으로 장엄한 모습을 연상시킨다. 도리방향의 단순한 장방형 水平材와 대조를 이루면서 보방향의 가구에 미적 장엄을 치중한 것이 이 불전의 특색이다.

주심포계팔작집 불전인 부석사 무량수전(圖 6, 7, 8)은 불단이 도리방향으로 안치되어 있어서 불단 정면에서 바라보는 지붕가구의 모습은 참으로 극적이다. 창방, 장여, 도리 등 도리 방향의 모든 세장한 부재가 앞쪽으로 내달리면서 지붕을 받치고 대들보, 계량, 종보, 대공 및 솥을합장이 상승하면서 이루는 구도는 佛이 常住하는 정토의 모습을 構築的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다른 불전에서의 정면은 여기서 측면이 되고 측면은 정면이 되는 놀라운 逆轉, 이로 말미암아 체험하게 되는 지붕가구의 새로운 아름다움이 이 불전에서 거둔 장엄 효과이다.

24) 가구부재의 조각에 대해서는 金東賢, 「韓國 木造建築의 彫刻에 대한 考察」, 앞 책, pp. 55~74.

조선초기 중심포맷배집 불전인 무위사 극락전(圖 26, 27)은 측벽가구와 내부가구가 사뭇 다르다. 측벽에서는 2고주를 종보 높이까지 세우고 보방향으로 세장한 수평부재(평주 창방, 고주 창방, 제1제공의 뿌리, 제3제공의 뿌리)를 많이 걸쳐 박공 부분의 벽면을 세분하고 있다. 물론 고주 사이의 어칸벽은 2개의 큰 벽면으로 나누어져 벽화를 그리기에 알맞게 되어 있다. 솥을합장, 파련대공, 종보 밑 보아지, 가름하게 위로 솥은 꽃모양의 화반 및 높이가 짜올린 귀포 등은 양쪽으로 경사져 내려가는 지붕을 위로 올라가면서 받치고 있는 듯하다. 한편 내부가구는 고주를 세우지 않은 채 대들보를 전후면 평주 사이에 통칸으로 걸쳐 놓고 이 위에 花盤대공을 얹어 종보를 받치고 종보 위에 파련대공과 솥을합장을 세워 연등천정을 받치고 있다. 대들보 밑에서 당초형 보아지로 바뀐 공포로부터 시작해서 대들보 위 대공으로, 다시 종보 위 대공으로 이어지는 당초무늬의 유연한 곡선은 이 건물 지붕가구가 지닌 장엄의 특색이다. 또 하나 이 건물의 의장적 특징은 종보 아랫몸에 우물반자를 가설하여 어칸 천정을 둘레의 연등천정과 구분짓는 것이다. 어칸 천정의 뒤쪽 즉 불단 위쪽에는 공포를 짜올려 만든 嵌入天井이 있어서 이채로운데 다포계팔작집 불전인 봉정사 대웅전에서도 이러한 감입천정을 사용하고 있어서 조선전기까지 유행한 天蓋의 한 형식이라고 짐작된다. 내부가구는 마치 이 천정을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틀처럼 보인다.

조선전기 다포맷배집 불전인 개심사 대웅전(圖 22, 23)도 무위사 극락전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측벽가구와 내부가구가 다르다. 내부에 고주를 세우지 않고 대들보를 평주 사이에 통칸으로 걸친 다음 대들보 상면에 화반대공을 놓아 종보를 받고 종보 위에 다시 솥을합장과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한 것은 무위사 극락전과 그대로 일치하는 점이다. 다만 대들보 위 화반대공을 도리방향으로 연결하는 방식과 종도리 밑 받침장여와 덧장여를 도리방향으로 연결한 방식, 즉 장여 사이에 화염형 화반과 침차를 2중으로 결합한 장여받침침차를²⁵⁾ 배열한 점만이 다르다. 또 무위사 극락전에서는 우물천정을 가설한 위치인 종보 밑에 불단보다 평면이 조금 작은 雲宮形 天蓋를 대신 설치한 점은 대조적이다. 이 천개는 연등천정 하에서 불상 위쪽을 어떻게 장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예이다.

2. 莊嚴具

1) 佛壇(須彌壇)

불전 내부에서 불상을 한 단 높이에 안치하기 위해 따로 설치한 壇을 須彌壇이라고 한다. 이 명칭은 불다가 계시는 수미산에서 유래하였는 바, 수미산은 원래 힌두교의 神 인드라(帝釋天)가 거처하고 있는 수메르(Smeru)로서 불교에 유입된 뒤 부처와 보살이 常住하는 곳을 가리키게 되었다. 불상을 수미단에 배열하는 것은 불전 내부 일곽을 수미산으로 간주하여 특히 神聖한 장소로 구획하기 위해

25) 배병선, 앞 논문, pp. 133~134.

서이다. 수미단에는 佛臺座에 모셔진 한 구의 불상 또는 불, 보살, 천부, 나한 등의 조각이 안치된다. 大像이나 群像을 안치한 수미단은 규모도 크고, 그 설계, 시공은 불전 자체의 건축구조 등과도 큰 관계가 있다. 또 수미단 자체가 불상의 대좌로 된 경우도 있는데 이를 수미좌라고 부르며 대좌의 범위에 포함시킨다.²⁶⁾

앞서 평면구성을 논하면서 이미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 고대 불전에서는 황룡사 중앙 금당에서와 같이 불전 내부를 불단이 설치된 내진부와 그밖의 외진부로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특히 불단 부분을 다른 곳보다 한 단 높게 만든 사실을 알 수 있다.²⁷⁾ 이 불단은 흙을 한 단 높이 盛土한 다음, 돌레에 돌을 기단식으로 쌓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불단 상면에는 낮은 대좌를 놓고 釋迦三尊佛立像을 봉안했다. 이러한 형식의 기단은 그 후 고대 불전에 일반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예가 거의 없다.²⁸⁾

현존하는 최고의 목조건물인 鳳停寺 極樂殿의 경우 장방형 평면의 목조 불단(圖 2, 3)을 기단으로 삼은 佛殿形 佛龕을 후불벽으로부터 약간 앞쪽으로 배치하고 있다. 불단 밑에는 전체 바닥면보다 약간 높게 화강석 받침돌을 놓고 상면 모서리를 궁굴려 형태상 불단과 일체가 되도록 하였다. 고대 불전에서 보이던 건축기단식 불단은 쓰지 않고 중국 宋代(960~1279) 및 일본 鎌倉時期(1192~1333)에 유행한 이른바 禪宗樣 佛壇과 같은 형식의 목조 불단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 불단을 건물 건립시기인 13세기에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불단의 구성상 특징은 상대와 하대를 넓게, 중대를 좁게 만들어 그 사이를 모퉁이와 쇠시리를 써서 좁혀 들어간 점,²⁹⁾ 중대를 낮게 만들고 그 사이에 투각한 당초무늬 청판을 끼운 점, 상대 갑판 밑면에만 복련을 얹게 陽刻한 점, 불단 상면 테두리에 난간을 세운 점³⁰⁾ 등이다. 난간 안쪽에는 세장한 八角柱를 세워 정면 1

26) 關根俊一, 앞 글, p. 47. 이 글에서는 일본의 수미단을 형식별로 壇上積式須彌壇, 和樣須彌壇, 禪宗樣須彌壇, 大佛(天竺)樣須彌壇, 折衷樣須彌壇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형식이 일본 古代 불전에서부터 中世 불전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차례로 발전해 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7) 현재 경상북도 영일군 신광면 상읍리에 남아 있는 法光寺터를 地表調査한 보고서에 의하면 新羅 眞平王代(579~631)에 창건했다고 전하는 금당터가 잘 남아 있으며 이곳의 주춧돌, 고막이돌, 신방돌들로 이루어질 때, 금당 내부는 외진부 및 佛臺座를 중앙에 안치한 내진부로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남아 있는 연화대좌석 돌레에 四天柱式 고주를 세웠던 주춧돌이 남아 있고 뒷쪽 주춧돌 사이에 고막이돌이 남아 있어서 후불벽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주문화재연구소, 『年報』 제3호, 1992., pp. 114~146 참조.

28) 고대 사원 유적을 발굴할 때, 특히 금당지를 발굴할 때는 불단의 상황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만 우리나라 고대 불전 내부공간의 장엄 문제를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29) 이러한 형태상의 특징 때문에 宣字座라고도 부른다. 한편 고려시대의 석조 대좌 가운데 高達寺址 석조 대좌(10세기, 보물 8호)나 萬福寺址 석조대좌(11세기, 보물 31호)는 중대를 낮게 하고 상대나 하대를 상대적으로 크고 높게 만든 점에서 구성상 극락전 불감의 기단부와 통한다.

30) 난간의 뒷쪽에 두른 돌란대는 배흘림이 있는 方形童子柱로 받치고 있는데, 이 동자주의 주두는 굽을 곡면으로 처리하였다. 난간 동자기둥을 이런 식으로 만든 예로는 불국사 석축 석교(청운, 백운, 연화, 칠보교)의 난간 및

칸(단 배면 가운데 기둥을 세워 2칸으로 뻗음), 측면 1칸의 평면을 구성하고 그 위에 다포우진각집 형태의 불전형 불감을 조성하였다. 이 불감의 지붕가구, 공포, 낙양각의 모란당초문 투각 등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판단할 때 불단과 마찬가지로 건물과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³¹⁾ 봉정사 극락전의 불단은 불전형 불감의 기단으로서 불상을 봉안하는 대좌의 기능만을 갖고 있어서, 上面에 공양 및 예불용 法具를 올려 놓을卓子가 따로 필요하였으며 불단 내부도 후대의 불단에서처럼 收藏空間으로는 활용되지 않았다.

無爲寺 極樂殿의 불단(圖 28)은 건물 건립년대인 1430년(세종 12)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성과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 앞서의 봉정사 극락전 불단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장대석 받침돌 위에 나무로 모접이한 2단 받침을 깔고 그 위에 床脚 모양(정면 3칸, 측면 2칸)의 下臺, 연주문 어의동자 기둥을 세워 정면 4칸, 측면 3칸(안상을 얹게 새기고 청판에 귀면무늬, 꽃무늬를 그림)으로 분절한 2단 中臺(중대목과 중대받침, 상대받침 등에는 앙련, 복련 등 연꽃을 아주 얹게 양각하였다), 밑면을 경사지게 3단으로 모접이한 上臺, 상대 갑판 앞쪽에 놓인 補卓(4칸*1칸)³²⁾ 및 난간(佛座 좌우를 가리기 위해 불단 좌우 가장자리 후반부에 설치)으로 구성된 불단을 排設하였다. 봉정사 극락전 불단과 비교할 때 동일한 점은 중대보다 상대대를 넓게 한 사실에 불과하다. 다른 점은 하대가 상다리 형식인 점,³³⁾ 중대를 낮고 높은 2단으로 구성하여 상대나 하대에 비해 훨씬 높게 만들고 각 면에 안상을 새겨 그림을 그린 점, 상대 갑판을 하대보다 밖으로 길게 뻗은 점, 사방을 두른 건물 난간 대신 좌우 후반부에만 홍살 난간을 세운 점, 불단 상면에 불좌, 보탁, 공양법구를 놓아 기능을 확대, 세분한 점, 불단 뒷면 중대 중앙부에 2짝 판문을 달고 내부에 물건을 수장할 수 있게 한 점 등이다. 즉 형식과 기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봉정사 극락전 불단에서 무위사 극락전 불단으로의 변화는 불단의 역할과 형식이 200여 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음을 뜻한다. 불단이 건축가 집단에 의해 건물 설계시에 함께 제작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건축양식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15세기초의 건물로 추정되는 봉정사 대웅전의 불단(圖 31)은 같은 절 옆 건물인 극락전의 불단과 좋은 대조를 보일 뿐만 아니라, 무위사 극락전 불단과도 약간의 형식상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전돌바닥이 아닌 마루바닥 위에 놓인 불단으로서 얇은 한 단의 받침목 위에 상다리형 下臺, 3단(맨밑은 낮고 위 두 단은 높다)으로 구성하고 정면 11칸, 측면 4칸(이 중 2칸에 문 설치)으로 나누어 각 칸마다 꽃무늬를 조각하였으며 중대 받침

다보탑 난간에서도 볼 수 있는 바, 통일신라 이래의 전통적 기법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鳳停寺 極樂殿 修理 工事報告書』, p. 146)

31) 『鳳停寺 極樂殿 修理工事報告書』, pp. 146~148.

32) 불좌를 안치한 부분과 공양법구를 놓은 부분을 양분한 일종의 간막이용 탁자로 여기서는 보조탁자라는 뜻으로 보탁이란 용어를 채용하였다.

33) 무위사 불단보다 앞서서 상다리 모양 하대가 사용된 예로는 신록사 보제존자 석종 앞 석등(1379년작, 보물 231호)이 있으며, 이후 고려말 조선전기의 왕릉 앞 장명등에서 일반화된다.

윗면에 복련을 얹게 양각한 中臺, 맨 위 중대목보다 두껍고 밖으로 약간 내민 上臺, 상대 갑판 윗면 앞뒤로 놓인 장방형 補卓(7칸*1칸) 등으로 구성된 불단이다. 무위사 불단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은 전체 형태가 직육면체인 점, 상대가 낮아지고 중대가 높아진 점, 중대 각 단의 면을 세분한 점, 보타를 앞뒤로 2개 놓은 점, 불단 측면에 문을 낸 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형식상의 차이일 뿐 기능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 불단 앞 마루바닥에 놓인 낮은 목조 가구는 고대 사원의 석등 앞에 놓이는 배례석처럼 생겼는데, 불상 앞에서 승려가 앉는 자리인 禮盤인 듯하다. 봉정사 극락전이나 무위사 극락전에도 이러한 가구가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고려말 조선전기의 대표적 불전인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수덕사 대웅전, 개심사 대웅전의 불단은 아직 제작년대를 알기 어려우나, 건물 건립 당시의 원작은 아닌 듯하며, 직육면체 형태의 장방형 불단이 일반화된 16~17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어쨌든 16세기 이후의 불전에서 보이는 장방형 불단은 적어도 15세기에는 그 형식이 완성된 듯하며, 예불과 공양 및 수장 기능까지를 담당하는 역할은 이후 조선말기까지 지속된다.

2) 天蓋

천개는 梵語로 Chatra라고 하며, 원래 인도에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貴人들이 썼던 傘蓋에서 유래한다. 불교에서도 佛陀나 佛弟子에게 씌워 경의를 표하는 장엄구로 활용되어 화려함과 엄숙함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불, 보살에 씌운 것을 천개(佛天蓋), 그밖의 것을 傘蓋 또는 人天蓋라고 부른다.³⁴⁾ 우리나라 불전에서 천개를 사용한 最古의 예는 물론 석굴암이다. 본존불상의 머리 위쪽 굴 천정 중앙부에 얹어 놓은 연화문 천개는 우리나라 고대 불전 내부의 천개에 관한 유일한 자료이다. 이 천개는 불상의 장엄구인 동시에 불전 전체의 덮개 역할도 하고 있다.³⁵⁾ 한편 현존 最古의 목조 불전인 봉정사 극락전 불전형 불감(圖 3, 4)의 다포우진각지붕은 목조 불전에 남아 있는 최고의 천개이다.³⁶⁾ 지붕은 불전 건축의 지붕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으로 多包系の 공포를 외 5출목, 내 2출목으로 짜 올려 겹쳐마 지붕을 받치도록 하였다. 내부 천정은 3칸인데 가운데 천정은 격자형 소란을 짜서 끼웠다. 공포의 만듬새와 짜임새, 창방과 인방 사이에 투각한 모란당초문 조각 등은 이 천개를 포함한 불감이 건물 건립시기인 13세기에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적어도 13세기에는 다포계 공포가

34) 關根俊一, 앞 글, p. 42.

35) 『三國遺事』卷 5, 大城孝二世父母 條에서는 석굴 전체를 龜室로 보고 연화 천개를 龜蓋라고 하였다. 더구나 이 천개에 대해서는 만들다가 세 쪽으로 갈라져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던 차에 밤에 天神이 내려와서 완성시켜 주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어서 주목된다.

36) 석조물 가운데는 석불 머리 위에 씌운 천개(구기리 마애불좌상 등), 石造浮圖나 石碑의 屋蓋(羅末麗初 禪宗 祖師들의 것. 예 : 지광국사현묘탑) 등이 화려한 천개로 만들어져 있는 예가 있어서, 적어도 고려시대에는 사각형 평면의 懸垂形 천개가 불전 내부에도 많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에서도 사용되었고, 이전부터 중국에서 유입되어 있었음을 알려 준다.³⁷⁾

그런데 고려말 조선전기의 불전에는 천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며³⁸⁾, 부석사 무량수전의 亞字形 천개(圖 6)도 17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시기 천개의 實狀을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³⁹⁾ 다만 우물천정의 일부를 嵌入하여 천개를 조성하는 방식이 15세기의 두 불전, 즉 주심포맞배집 불전인 무위사 극락전(圖 26)과 다포괄작집인 봉정사 대웅전(圖 32)에서 보이며, 조선후기의 장곡사 하대웅전, 봉암사 극락전 등에 계승된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다양한 천개 형식의 원형이 앞선 시대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⁴⁰⁾

3) 机와 卓子

앞서 봉정사 극락전의 불전형 불감을 다루면서 이 불감의 불단은 불상의 대좌일뿐 공양, 예불용 법구를 올려 놓을 자리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불단 앞쪽에 그러한 기능을 맡아 줄 시설, 즉 탁자가 따로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현재는 남아 있지 않지만 일체침략기인 1938년에 일본인이 찍은 사진에 의하면 불단 앞쪽에는 다리, 중대, 상대 갑판으로 구성된 세련된 형태의 탁자가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¹⁾ 이 탁자는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로, 다리는 앞뒤에 각각 3개씩 세웠는데 이른바 鷲脚이다.⁴²⁾ 다리 사이에는 가로로 구름무늬를 조각한 보강재를 끼웠으며, 다리 위쪽을 연결한 가로대에는 독특한 형태의 낙양각을 조각하였다. 중대와 상대의 밑받침에는 연꽃을 얹게 양각하였고, 중대 청판에는 天蓋의 공포 사이에 조각해 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모란꽃을 투각하였다. 또 윗면 한 모퉁이에는 불단 네 모퉁이에 세워진 기둥과 똑같은 형식의 기둥이 남아 있어서 원래 네 모퉁이에 모두 이 기둥이 있었으리라고 여겨진다. 수덕사 대웅전 불단 앞에 놓인 탁자(圖 11)는 거의 같은 형식을 보이나, 원작은 아니며 언제 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지나친 비약인지는 모르나, 이러한 탁자의 형태와 기능을 불단에 합쳐서 하나로 만든 것이, 상다리 모양 下臺를 가진 장방형 불단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37) 『봉정사 극락전 수리공사보고서』, p. 147.

38) 불전 내부에 천개를 설치하지 않은 예는 수덕사 대웅전, 장곡사 상대웅전, 관룡사 약사전,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등이다. 조선후기의 불전 가운데도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무량사 대웅전, 범주사 괘상전, 쌍봉사 대웅전(이상 중층 불전), 내소사 대웅보전, 기림사 대적광전, 운문사 대웅전, 전등사 약사전, 선운사 참담암 대웅전 등 천개를 설치하지 않은 예가 다수 있다.

39) 「無量壽殿須彌壇上寶蓋背面板 墨書」, 『韓國古建物上標記文集』 - 『考古美術資料』 第5輯 -, p. 106에 의하면 천개의 제작 시기는 1618년(광해군 10)인 듯하다.

40) 천개를 단집이라 부르면서 천개에 대한 개괄적, 종합적인 시도를 한 연구에 다음 두 편의 글이 있다.

裒秉宣, 「단집의 建築史學的 研究」, 문화재연구소 연구 교재, 1991.

申芝容, 「단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2.

41) 近藤 豊, 『韓國建築史圖錄』, 日本 京都, 思文閣, 1974., pp. 109~112.

42) 일본의 경우 鷲脚形式의 탁자는 平安後期부터 鎌倉時期에 걸쳐 유행하였다. (關根俊一, 앞 글, pp. 74~75.)

IV. 朝鮮後期 佛殿의 莊嚴

이제까지 고려말 조선전기 불전의 내부 장엄을 고찰하기 위해 건축 요소와 장엄구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불전의 건축 요소들과 장엄구는 건축가 집단에 의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건축양식이 다르면 불단이나 천개 등 장엄구의 양식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고려말 조선전기의 불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각 시기를 대표하는 양식적 특징이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충분히 논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밀한 작품 분석을 토대로 이 시기 불전 내부공간 장엄의 전통을 파악하고 이를 조선후기 불전의 장엄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제 조선후기 불전 가운데 17세기 전반에 지어진 花巖寺 極樂殿(1606년)과 開巖寺 大雄寶殿(1636년)을 중심으로, 17세기 불전건축이 몸담고 있던 전통과 이 시기에 발생한 새로운 변화상을 살펴보고 그 변화가 어떻게 17, 18세기 불전 건축에서 보이는 새로운 조류를 형성했는지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여기서는 건축요소와 장엄구로 나누어 한 시기 불전의 장엄을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불전 하나하나를 역사와 자연환경 속에서 다루면서 그런 가운데 각 건물의 건축 요소와 장엄구가 어떻게 앞 시대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또한 전쟁 이후에 재건되면서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1. 花巖寺 極樂殿

화암사는 전라북도 완주군의 남쪽, 활엽수림으로 덮인 불명산(해발 428m)의 남쪽 중턱 깊은 골짜기에 자리잡은 신라시대 이래의 유서깊은 고찰이다. 『花巖寺重創記』(1572년 立碑)에 의하면 1425년(세종 7)부터 1429년에 걸쳐 당시 공조판서인 成達生(1376~1444)에 의해 重創되었다고 한다. 이 절의 主佛殿인 極樂殿은 1981년에 해체, 보수할 때 나온 墨書銘에 의해 1605~1606(선조 39)년에 세워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인 다포계맞배집 불전으로 경내에 있는 寂默堂, 佛明庵, 雨花樓 등과 함께 형성한 中庭 북쪽의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1) 건축 요소(圖 33, 34, 35, 36)

架構法에서 볼 때 주심포계의 특징과 다포계의 특징 및 下昂을 혼합한 독특한 건물로 주목받고 있으며, 공포는 안 3출목, 밖 2출목으로 정면과 뒷면에만 배열하였다. 외부 공포의 살미침차는 끝만 살짝 들린 하향곡선을 이루고 있고, 그 위의 하앙은 정면에서는 용두를 받친 구름 즉 雲龍文으로透刻되어 있고, 뒷면에서는 끝이 날카로운 삼각형을 이루며 내리뻗쳐 있다.

다시 말하면 다포계의 공포 위에 하앙을 짜올리면서, 正面에서 하앙 자체를 雲龍文으로 조각함으로써 앞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외부에서의 지붕 장엄법’을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다. 전체적인

外觀은 앞 시기와 달라진 것이 없으나, 지붕을 조각으로 장엄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이것은 비단 공포 부재의 '장식화'⁴³⁾로 이름붙여진 樣式上의 문제일뿐 아니라, 지붕이라는 구조체를 불교의 내용을 표현하는 상징물로 삼으려는 새로운 시도이며, 내부공간의 장엄에서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장엄의 전통을 외부에까지 확대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인다.⁴⁴⁾

물론 이 불전의 내부 공포는 연화당초, 용, 봉황 등을 板形으로 조각하고 이를 겹겹으로 쌓아 올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천정이 정도의 하늘임을 상징하고 있다. 아직 조각 솜씨가 미숙하여 용이나 극락조의 모습을 충분히 형상화하지 못한 감이 있으나, 앞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의 맨 첫 실례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시대의 序章을 연 뜻깊은 작업을 이 불전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내부의 장엄을 보면, 먼저 바닥은 마루이며 고주를 설치하지 않은 평면의 어칸 후면에 측면 平柱列로부터 약간 뒤로 물려 불단을 설치하였다. 마루를 불전 내부에 깔기 시작하는 것이 정확히 언제부터인가는 말할 수 없으나 보편적으로 마루를 깔 시기가 17세기임은 분명하다고 볼 때 이 건물의 마루는 그 초기 예가 되는 셈이다. 또한 맞배집에서 고주를 채용하지 않는 방식은 이미 조선전기의 주심포계맞배집 불전인 무위사 극락전과 다포계맞배집 불전인 개심사 대웅전에서 볼 수 있었으나 불단을 평주열보다 뒤로 물려 안치한 방식은 새로운 것이다.

벽과 창호의 구성을 보면 좌우 측벽의 어칸과 후퇴칸 및 배면 전부를 벽체로 처리하고, 정면은 모두 빗살분합문, 측면 전퇴칸은 외쪽띠살문이다. 이러한 벽과 창호의 구성은 15세기의 주심포계맞배집 불전인 무위사 극락전 및 다포계팔작집 불전인 봉정사 대웅전에서 보이던 조선전기 이래의 개방화 경향을 역행한 듯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배면의 각 칸에는 문이나 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벽선, 하방, 인방재 구획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문을 달았던 흔적마저 있다.⁴⁵⁾ 즉 현재는

43) 윤희상, 앞 글 참조. 조선후기 건축의 양식적 특징을 공포 부재의 장식화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鄭寅國의 『建築樣式論』 이후 거의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장식 자체의 의미나 장식을 적극적으로 쓰게 된 원인은 별로 탐구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조선후기에 불전이 龍, 鳳으로 장식된 이유를 부유해진 농민층의 佛事 참여에 따른 민중적 신앙(샤머니즘으로 국한함)의 반영으로 해석하려는 특이한 시도(李武熙, 「朝鮮後期 佛殿의 特性과 그 變化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년)가 있었다. 그러나 민중적 종교 취향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불교 전래의 전통적 정토관을 설명적으로 드러내려 한 사원층의 의도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장식화 경향을 조선후기 한국건축의 특징으로만 부각시키기보다는 당시 동아시아 건축의 국제성이 '장식의 발전'에 있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伊藤延男, 『日本建築에 보이는 裝飾의 變遷』(이강근 譯, <플러스> 9304., pp. 172~177) 참조.

44) 물론 용이라는 소재로 불교적인 예배물이나 상징물을 받치는 부분(기단, 대좌 등)을 장엄하는 전통은 지극히 오래되고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나 건축에서는 지붕 상부에서 용마루를 장엄하는 기와인 용두로 일찍부터 쓰였을 뿐, 지붕이나 건물 전체를 밑에서 받치는 입체적인 조각으로 표현된 예는 敬天寺址十層石塔(1349년, 국보 86호)이 최초이다. 이 탑의 3층 지붕 상부에는 4개 지붕 사이에 용두를 입체적으로 조각, 배치하여 4층 이상의 탑신을 받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본따 만든 圓覺寺址十層石塔(1465~1467년작, 국보 2호)에서도 뒤풀이되어 나타남은 물론이다. 한편 불전의 네 추녀 밑에 용두 조각을 한 최고의 예는 조선전기작으로 알려졌던 寶林寺大雄殿(한국전쟁 때 소실)이다.

45) 『完州 花巖寺 極樂殿 實測調査 報告書』,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85., p. 45.

회벽으로 막아 놓았지만 건립 당시에는 오히려 조선전기 이래의 개방화를 계승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창호에 아직 꽃살 등 장식적 요소를 첨가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이 건물이 아직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외부의 周壁을 보면 측벽 어칸은 側壁高柱 2개와 중보로 형성된 큰 면을 평주 사이에 걸친 평방을 써서 수평적으로 이분하고, 아울러 細長한 壁心柱를 2개씩 세워 수직적 분할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6개의 세로로 긴 벽면으로 분할되었는데 벽화가 그려졌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으나 분할된 면의 크기나 가로 세로의 비례가 畫面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위사 극락전의 경우 창방 아래에는 벽화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창방 위쪽의 벽면(수평 분할됨)에는 어칸, 협칸 모두에 벽화가 그려졌음을 상기할 때, 화암사 극락전에서는 벽화로 불전을 장엄하던 전통을 계승하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주벽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로여서 벽화를 장엄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七星幀, 神衆幀, 現王幀 등이 벽면의 구성 및 크기와 관계없이 걸려 있다.

後佛壁과 高柱는 설치하지 않았다. 즉, 불단 갑판 위에 기둥 4개를 세워 천개를 지탱하고, 그 뒤로 후불벽은 막지 않은 채 후불탱화만 대들보 윗면에 걸어 늘어뜨렸다. 그 결과 후불탱화의 윗부분은 천개에 가려지고 뒷기둥에 의해 畫面이 잘리게 되어 장엄 요소간에 조화롭지 못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무위사 극락전과 비교할 때 후불벽 없이 탱화를 건 점, 감입천정을 대신해서 亞字形 지붕의 천개를 설치한 점 등이 새롭다. 후불벽이 없으므로 무위사 극락전 후불벽 이면의 백의관음보살도와 같은 그림은 그릴 수 없었으며 이것은 周壁을 벽화 그리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분할하여 결과적으로 벽화를 그리지 않게 된 것과 상통하는 경향이라고 생각된다.

외부 포벽에는 化佛이 그려져 있으며, 내부 포벽에는 그림이 남아 있지 않다. 포벽 위쪽에 있는 상벽에는 공포 배열에 맞추어 부정형 사각 판재를 겹쳐 얹은 판형 화반을 배치하고 그 사이의 소벽에는 나한도 일부가 남아 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기에 알맞는 감실형의 벽면이 아니어서 장엄 효과는 별로 좋은 편이 아니다. 이 상벽 위쪽에는 한 단 접어 다시 층단을 마련하였는데 장여를 두 겹으로 놓아 구조적인 역할을 할 뿐 독립된 벽면을 이루지 않고 있어서 본격적인 층급천정으로 발전되어 있지는 않다.

천정의 반자는 격자형 소란으로 짜여 있으며, 여러 가지 문양의 고색질은 단청이 칠해져 있다.⁴⁶⁾ 화려한 단청으로 장엄된 천정의 속에는 끝부분만 간단하게 다듬은 배불룩한 마루보와 그 위에 얹은 판형 대공이 숨겨져 있다. 연등천정에서 지붕가구재의 治木에 쏟았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드러난 가구재인 대들보 및 상벽 화반조차도 부재선택과 치목에 크게 공을 들이지 않았다. 이제 불전을 장엄하는 노력은 천정 밑에 드러나 있는 부재를 장식화하는 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향성은 구조부재의 장식화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木彫刻을 건축에 접합하는 식

46) 1714년에 중수한 단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영훈, 『국보』 9 사원건축, 1988, p. 208.)

으로 발전해 갔다. 같은 시기의 開巖寺 大雄殿에서 이미 목조각이 내부의 장엄 요소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2) 장엄구(圖 35)

이제까지 건축요소별로 불전 내부의 장엄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장엄구는 어떤가. 먼저 불단을 살펴보자. 불단의 폭(4.55m)이 어칸의 폭(3.7m)보다 큰 것은 15세기의 불전에서는 볼 수 없던 특징이다. 구성을 보면 상다리형 下臺와 一段 괴임을 둔 上臺는 낮은 대신, 3단으로 만든 중대는 높고 넓다. 중대 각 단의 높이는 맨 밑 단이 약간 낮긴 하지만 거의 같은 높이로 만들어져 있어서, 봉정사 대웅전 불단의 3단 구성과는 차이가 있다. 또 각 단을 수직적으로 분할하는 어의동자(구슬 띠 모양임)의 배열이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는 점, 중대받침에 복련을 조각하지 않은 점 등도 다른 점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장방형 불단으로서 무위사 불단과는 계통이 다르고 봉정사 불단의 계통을 따르고 있다. 배면에서는 중대 각 단을 분할하지 않고 중앙에 문을 내어 수장 공간을 마련하였다. 상대 갑판 위에는 전면에서 30cm 정도 들여서 寶卓을 설치하였는데 상다리형 하대, 낮고 긴 중대(면분할하지 않음) 및 상대로 구성되어 있다. 단, 측면에서는 상다리형 하대 위에 바로 살柵을 세웠다. 형식과 기능면에서 조선전기 봉정사 불단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면서 약간의 변화를 보여 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천개는 어떠한가. 불단 위 보탑 상면에 4개의 기둥을 세워 중앙자형 지붕 전체를 지탱하게 하는 한편 천정에 철선으로 걸었다. 평면을 보면 장방형 평면의 정면에 丁字形 평면을 돌출시킨 형태이다. 지붕은 다포계팔작집으로 안팎 7출목에 외부는 살미형, 내부는 교두형 첨차를 충실히 짜맞추고 있다. 내부의 천정은 팔각형으로 짜올라온 공포 위에 天板을 깔아 만들었다. 이러한 천개는 다포계 팔작집이 조선전기에 크게 발전했었다는 증거이다. 발달된 건축술을 천개 제작에 응용한 것은 물론 불전 내부 특히 불단 위를 화려하게 장엄하기 위한 시도이며, 아울러 앞 시대의 佛殿形 佛龕을 계승 발전시킨 시도이기도 하다. 게다가 뛰어난 형태의 천개에는 운룡을 중심으로 공중에 떠있는 비천상, 동자상, 구름, 봉황 등을 목조각으로 만들어 매달아 놓았다. 그리고 이들 조각은 돌출된 지붕에 매달린 虛柱 끝의 연봉 장식 안에서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부처의 머리 위를 장엄하고 있다. 靜的이기만한 불상 위 공간을 극적인 動感의 세계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 開巖寺 大雄寶殿

앞서 1605~1606년에 중건된 화암사 극락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앞 시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부분과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경향을 함께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에는 개암사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다포계팔작집 불전의 경우를 살펴보자.⁴⁷⁾

개암사는 백제말 통일신라 초기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유서깊은 절이나, 현재는 1636년(인조 14)에 세워진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응진전, 영각, 응향각, 요사 등만을 갖추고 있는 소규모 사찰이다. 절 뒤로는 우금암이라고 불리는 경관이 빼어난 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데, 이 산에는 백제가 멸망한 뒤 부흥운동의 본거지로 쌓았던 주류성터가 남아 있다.

1) 건축 요소(圖 37, 38, 39, 40)

대웅보전은 장대석 기단 위에 다듬지 않은 초석을 놓고 세운 건물로 정면 3칸(11.85m), 측면 3칸(7.8m), 면적 28坪인 다포계팔작집 불전이다. 바닥에 범석을 충실히 따른 마루를 깔고, 측면평주보다 뒤로 물려 굽기가 평주에 비해 가는 高柱를 세웠다. 고주 사이에는 후불벽을 치고 그 앞쪽에 고주 간격보다 폭이 넓게 불단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평면구성은 앞서 살펴보았던 화암사 극락전과 비교할 때 고주를 세운 점 외에는 동일하다. 즉 불단 위치를 뒤로 물려 보다 넓은 예불 및 범회 공간을 확보하려는 당시의 경향이 반영된 구성인 것이다.

周壁과 창호의 구성을 보면, 측면 어칸과 후퇴칸을 벽체로 막은 외에는 모두 창호를 설치하였다. 벽체는 灰砂壁으로 하방, 중방, 인방(창방 밑) 등 수평재 및 벽선으로 보강한 결과 매칸마다 2개의 벽면으로 분할되었다. 측면에서는 중방이 전퇴칸의 문인방보다 약간 낮게 설치되어 측면 전체의 面分割에 통일성이 없기는 하나 이는 문의 높이에 맞추어 중방을 설치할 경우 벽면의 분할이 자연스럽게 될 것을 고려한 결과이다.⁴⁸⁾ 그러나 이러한 분할이 외부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이더라도, 내부에서는 단을 설치하고 그림을 걸거나, 벽화를 그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다포계팔작집 불전인 心源寺 普光殿(황해도 연탄) 및 봉정사 대웅전의 측면 어칸에서처럼 벽면을 분할하지 않는 것이 내외 장엄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전퇴칸의 문 윗벽에도 내외 모두 아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배면 문 윗벽에도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이 건물에서는 주벽의 어디에도 벽화로 장엄하려는 시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단 배면의 경우 3칸 모두 문미 높이에 수평재를 가로질러 통일된 외관을 보이고는 있으나 문 윗벽면에 그림을 남기지 않았다. 같은 17세기초의 맞배집 불전인 화암사 극락전에서도 주벽의 장엄을 고려하지 않은 벽면 구성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임란 이후에 재건된 불전에서는 주벽을 내외장엄의 요소로 취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후의 불전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示唆해 준다.

창호를 보면 현재 정면은 꽃살문, 측면과 배면은 정자살문으로 되어 있으나, 원래는 모두 정자살문이였다.⁴⁹⁾ 한 단의 궁관 위에 굽은 살대로 짠 문살을 둔 문짝들은 건물 전체의 외관에 간결하게

47) 개암사 대웅보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洪大炯, 「開巖寺 大雄寶殿 建築形式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년)가 있으며, 실측조사는 『한국의 고건축』 제11호(문화재관리국, 1989년)에 실려 있다.

48) 1958년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우측면 중방에 현관을 설치하고 있다. (『한국의 고건축』 제11호, p. 112.)

49) 위 책, p. 100.

정제된 맛을 보여주며, 화암사 극락전의 굵은 빗살로 짠 문과 더불어 앞 시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현재의 꽃살문은 최근에 바뀌 단 것으로 조선후기 불전의 일반적 경향을 모방한 것이다. 한편 측면 어칸과 후퇴칸을 제외한 모든 곳에 살문을 달았는데, 특히 배면의 3칸 모두에 출입용 살문을 달았기 때문에 내부는 아주 밝다. 조선전기 이래의 평면 개방화 경향이 극도로 추구되어 배면에까지 살문을 설치한 경우이다.

고주를 측면평주열보다 뒤로 물려 배치하는 移柱式 배치법이 15세기에 봉정사 대웅전에서 이미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고주를 뒤로 한 걸음 더 물려 배치하였다. 후불벽 뒤는 더욱 좁아졌으며 그 결과 이곳은 예불과는 동떨어진 공간 즉 수장 공간화되었다. 그래서 후불벽 뒷벽면(중방으로 2분할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배면 어칸의 출입문이 후불벽 뒷면에 그려지는 벽화(백의관음도)에 대응해서 예불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려면 후불벽 뒤의 공간이 넓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고주가 正置되어야 한다. 고주의 위치, 후불벽 이면벽화의 조성 및 출입문 설치 여부 등은 이렇듯 원래는 긴밀하게 상호관련된 것이었으며, 불전 내부에서 행해진 의례와도 무관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이제 그러한 체계가 깨져버렸다. 고주를 뒤로 물린 것을 구조상의 변화로만 해석하지 말고, 불교 의례상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후불벽 이면에 관음보살도 계통의 벽화를 남기고 있는 불전을 보면 後面高柱를 正置한 경우(금산사 대적광전, 위봉사 보광명전, 운문사 대웅전, 선운사 대웅전, 마곡사 대광보전 등)가 많고, 移柱한 경우(흥국사 대웅전, 내소사 대웅보전, 관룡사 대웅전)라 하더라도 이면 공간이 비교적 넓게 확보되어 있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공포는 다포계로 공간포를 정면에 2개-3개-2개, 측면에 매칸마다 1개씩 배열하였으므로, 포벽이 정면에 10개, 측면에 6개 만들어졌다. 포벽에는 불좌상이 그려졌는데 현재는 내부 포벽에만 그림이 남아 있다. 사실 이 불전의 공포는 그 장식적 형태 때문에 일찍이 주목받았다. 즉 공포는 안팎 모두 3출목으로 두공침차와 살미침차를 정연하게 짜맞추었는데, 이 가운데 외부공포는 정면의 주두와 두공침차 및 소로를 모두 연꽃 모양으로 만들어 놓아 마치 연꽃이 올라가면서 겹겹이 피어 있는 것같은 사실적인 모습이다. 귀공포의 용두 위에도 활짝 핀 연꽃 모양의 받침을 얹어 놓았다. 한편 측면과 배면의 주두와 두공침차 및 소로는 전형적인 두공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장식화’가 정면을 독특하게 장엄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⁵⁰⁾

그밖에 假昂에 가까운 3겹의 살미 위쪽에 얹은 조각과 꽃봉오리를 입에 문 용두 조각도 간결하지만 빼어난 조각 솜씨를 보여준다. 이 부분은 내부에 들어가면 정면 어칸에서는 용두와 그 위에 날개를 펴고 앉은 극락조로 조각되고, 그밖의 부분에서는 휘어 올라가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의

50) 이 건물과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全北 益山 崇林寺의 普光殿은 荷葉柱頭의 형태, 전면 出目침차의 透刻手法, 내부의 龍頭, 鳳凰 조각, 天障의 구성기법 등이 개암사 대웅보전과 거의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다. (金東賢, 「개암사대웅보전의 建築樣式」 『한국의 고건축』 제11호, p. 95)

조각으로 표현된다. 외부에서조차 지붕을 받치는 요소들을 이렇듯 연꽃, 용, 봉황 등의 불교적 상징물로 조각한 것은 물론 불전의 지붕을 佛世界の 天으로 상징화하려는 시도이며, 화암사 극락전 이래 17세기 초의 불전에서 새롭게 보이는 조형적 경향이다.

이러한 표현은 내부에 들어가면 더욱 놀라운 모습으로 展開된다. 특히 전면 어칸과 귀포 및 앞쪽 두 층량에서 길게 돌출된 9개의 용두는 장엄하다 못해 두려운 느낌을 자아낼만큼 강렬한 효과를 연출한다. 또 전면 어칸에는 용두와 어우러져서 날개를 활짝 편 채 앉은 봉황을 배치하고 있다. 대들보나 층량을 받친 공포의 살미는 말아올라간 당초를 조각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교두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건실한 느낌을 준다.

포벽에는 단정하게 앉은 화불이 그려지고, 대들보 바닥 높이에 놓인 장여 위에 설치된 상벽에는 사각 관형부재를 네 켜씩 포개 만든 화반 사이에 벽을 막고 나한도를 그렸다. 상벽으로 받쳐진 우물천정은 장여 춤만큼의 높이 차를 둔 3단의 층급천정이다. 천개는 이 천정 어칸의 거의 절반을 덮고 있어서 용, 극락조 등의 조각 및 굵고 튼튼한 대들보와 층량으로 받쳐진 천정은 한층 높아 보인다. 이제 불전의 천정은 지붕가구재의 구조적 표현물일 뿐 아니라 佛이 주재하는 세계의 하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에는 2개의 고주를 측면 기둥열보다 훨씬 뒤로 물려 세워 예불 공간을 넓게 확보하고 있다. 다포계팔작집 불전으로 공포는 안팎 모두 3출목이며, 공간포는 정면에는 어칸에 3개, 좌우 협칸에 2개씩 배열하였고, 측면에는 매칸마다 1개씩만 배열하였다. 건물 앞뒷면에는 모든 칸에 분합문을 설치하고 측면에는 전퇴칸에만 외작문을 달아 출입하도록 하였다. 내부에는 가운데에 불단, 좌우 측벽에 신중단과 영단을 설치하였으며 불단 위에는 삼존불을 모시고, 후불벽에는 후불탱화를 걸어 놓았으며, 그 위쪽에 亞字形 천개를 걸어 놓았다. 천정은 층급형 우물천정으로 각 층급벽에는 나한도를 그리고, 정면 가운데칸 공간포와 귀포의 윗부분 및 층량 머리에는 모두 9마리의 용을 배치하여 내부공간을 극적으로 장엄하고 있다.

2) 장엄구(圖 38, 39)

佛壇은 상다리형 하대, 같은 높이의 단을 3겹 쌓은 중대 및 중대 외곽으로 30여 cm나 돌출시킨 상대갑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대는 7칸*3칸으로 매칸의 중앙에 삼엽형 꽃을 돌출시켜 통도사 대웅전이나 화암사 극락전 다리 장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대 각 단은 어의동자기둥을 어긋나게 세워 11~12칸으로 분절하고 매칸에 안상 모양의 풍혈을 파서 청판을 댔는데 아무런 조각을 하지 않은 점이 또한 앞 불전들과 다르다. 그러나 하대와 상대를 얇게 하고 중대만을 3단으로 크고 높게 만든 점에서 화암사 불단과 동일한 구성을 보인다. 또 뒷면에는 후불벽 아래쪽 중앙에 문을 내어 물건을 수장할 수 있게 하였다. 상대 갑판에는 앞과 좌우 측면 가장자리로부터 30cm 정도 들인 위치에 한 단의 중대와 상대 갑판으로 구성된 補卓을 배치하고 그 윗면에 화려한 木造 佛座 3개를 놓

아 三尊佛坐像을 봉안하였으며 그 좌우에 살책을 세워 경계를 나누었다. 이러한 보탁과 불좌의 구성은 전적으로 화암사 극락전과 같은 것이어서 17세기 초기에는 이러한 불단, 보탁, 불좌의 구성이 일반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天蓋는 장방형(정면의 돌출 부분은 폭이 넓은 대신 깊이가 얇음) 평면에 다포집 亞字形 지붕을 올린 형태로 支持柱 없이 천정에 매단 懸垂 지붕이다. 정면 지붕 위에 삼각형 박공지붕을 관형으로 만들어 세웠다. 공포는 밖으로만 10출목을 짜올리고, 내부에는 천정을 평반자로 막고 그 밑으로 구름과 3마리의 용을 입체적으로 조각하여 걸어 늘어뜨렸다. 낙양각은 당초무늬를 투각하여 붙였고, 허주는 앞줄 4 기둥에는 반쯤 핀 연꽃을, 뒷줄 두 기둥에는 봉오리를 조각하였다. 아래로 하강하는 듯한 용의 자세와 무서움을 자아내는 용의 얼굴, 공포 위의 당초각과 친연성이 엿보이는 낙양각의 당초문 투각, 반쯤 핀 채 거꾸로 매달려 있는 커다란 연꽃 그리고 약간 느슨하지만 가양을 닮은 살미첨차 등은 천개와 불전 건물이 함께 만들어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화암사 극락전의 천개가 기둥을 불단의 보탁 위에 세워 지탱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암사 대웅보전의 천개는 이제 완전한 현수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불단과 천개는 마치 별개의 것인양 보여 원래 불전형 불감으로 일체를 이루었던 사실마저도 잊게 한다. 17세기 이후에 지어진 불전에서는 이처럼 불단과 천개가 완전히 나누어져 따로따로 각각의 역할에 맞게 발전해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V. 맺음말

이제까지 불전 내부공간의 장엄을 중심으로 조선후기의 초기인 17세기의 불전에 반영된 傳統과 新潮流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7세기 전반의 두 불전에서는 앞 시대인 조선전기의 전통을 여러 가지 면에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닥을 마루로 한 점, 창호를 사방에 설치하여 개방적 평면을 구성한 점, 후면고주만을 세우거나 고주없이 후불벽을 설치하고 그 앞에 중대를 3단으로 구성한 장방형 불단을 설치한 점, 후면고주를 뒤로 약간 移柱시켜 예불이나 법회를 위한 공간을 넓게 확보한 점, 천정을 층급형 우물천정으로 만든 점 등에서 앞 시대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양식의 탄생을 알리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그 출발이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에 있었을 것이지만 현재 이 시기의 불전이 남아 있지 않아 예증하기 어렵다.⁵¹⁾ 따라서 17세

51) 1557년에 지어진 춘천 淸平寺 極樂殿은 6·25 동란으로 소실되고 말았으나, 일제 침략기에 日人 杉山信三에 의해 자세히 조사되었다. 그의 글과 사진에 의하면 정면 3칸, 측면 3칸인 다포계팔작집 불전에 후면고주를 세워 후불벽을 막고 후불탱을 걸었으며, 불단은 상다리형 하대, 低-高-低의 3단 중대, 상대 갑판, 보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를 連珠文 어의동자로 면분할하고 매칸마다 안상형 풍혈을 뒀으나 안상 안에는 아무런 조각을 하지 않았다. 천개는 정면 3칸, 측면 2칸인 장방형 평면 위에 다포계팔작집 지붕을 얹었는데, 공포는 안팎 5출목이다. 내부 천정은 팔각형 평면에 3출목공포를 짜올려 만들었다. 천정의 천판에는 봉황과 구름을 그렸다.

기 초에 만들어진 화암사 극락전이나 개암사 대웅보전에서 보이는 새로운 특징에 주목해 보면, 후 불벽 이면에 그림을 그리던 전통은 몇 불전에서만 이어지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된다. 후면고주의 移柱로 인해 이면 공간이 좁아지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周壁에는 그림을 그리기에 적합한 벽면이 있어도 그리지 않거나, 아예 벽화를 그리기에 부적합하게 벽면을 분할해 놓는 경우가 많다. 공포는 다포계가 일반화되며, 살미침차의 형태가 쇠셔화되고 맨 윗살미의 위에 당초, 용두, 봉황을 조각하여 이른바 구조부재가 장식화된다. 더구나 전에는 없던 안팎 귀포의 용두, 내부 공포 위의 용두나 극락조, 총량 머리의 용두 등 장엄을 위해 추가된 조각이 다채롭게 불전의 천정부를 수 놓는다. 말하자면 벽화는 쇠퇴하고 조각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다.

지붕 모양의 다포집 천개가 등장하여 다포계 건물에 일찍이 발전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천개는 물론 앞 시기의 불전형 불감의 지붕에서 발전한 것이긴 하나, 건축적 구조물에서 벗어나 장엄구로서 발전한다. 불단도 형태와 기능은 조선전기 봉정사 대웅전 불단을 계승하고 있으나, 그 폭이 정면 어칸 간격보다 커지고, 보탁은 세장한 장방형 간막이 역할을 넘어서 불좌까지 올려놓는 단으로 바뀐다.

15세기의 두 불전(무위사 극락전, 봉정사 대웅전)과 비교할 때 17세기의 두 불전은 시대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이 글에서 분명히 밝혔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러한 변화가 과연 언제 처음, 왜 일어난 것인가를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아울러 17, 18세기에 지어진 수많은 불전의 양식은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은 조선후기 불전에 대한 연구의 한 부분임을 밝혀 둔다.

중앙 불단 좌우에도 뒷벽에 붙여 신중단을 설치하고 벽에 탕화를 걸었다. 청평사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杉山信三, 『韓國中世建築』, 日本 東京, 상모서방, 1984., pp. 419~425.

—近藤 豊, 『韓國建築史圖錄』, 日本 京都, 思文閣, 1974., pp. 219~226.



圖 1. 봉정사 극락전 정면(高麗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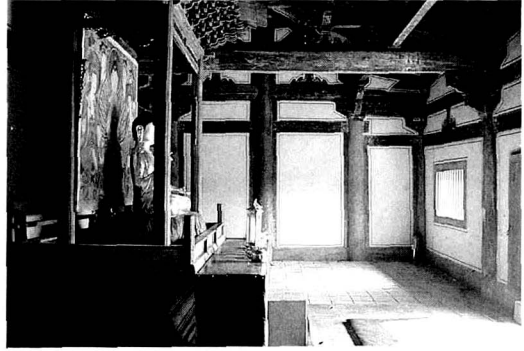


圖 2. 봉정사 극락전 내부



圖 3. 봉정사 극락전 불상 장엄



圖 4. 봉정사 극락전 천개 내부 천정



圖 5. 부석사 무량수전 전경(高麗末)



圖 6. 부석사 무량수전 내부 예불 공간



圖 7. 부석사 무량수전 전면 퇴칸



圖 8. 부석사 무량수전 천정 가구



圖 9. 수덕사 대웅전 전경(高麗末)



圖 10 수덕사 대웅전 향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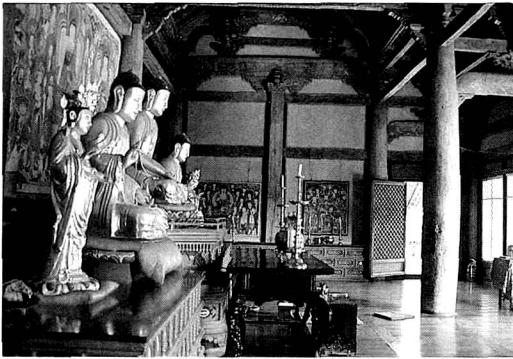


圖 11 수덕사 대웅전 불상 장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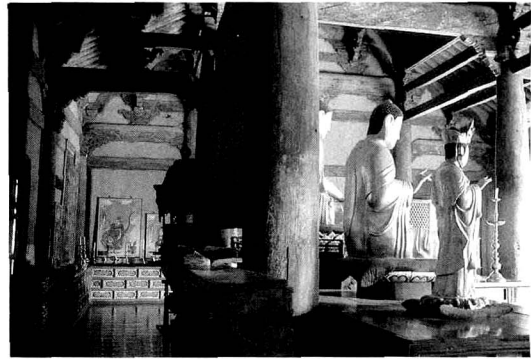


圖 12 수덕사 대웅전 후불벽



圖 13 거조암 영산전 조감(高麗末)



圖 14 거조암 영산전 전면



圖 15 거조암 영산전 불상 장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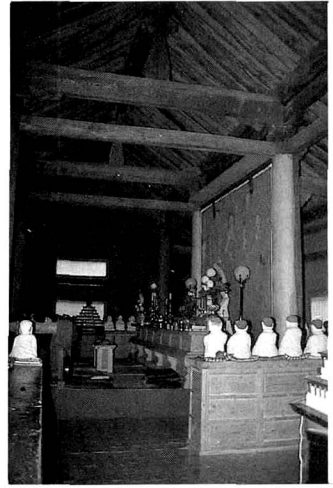


圖 16 거조암 영산전 예불 공간



圖 17 연탄 심원사 보광전 정면(高麗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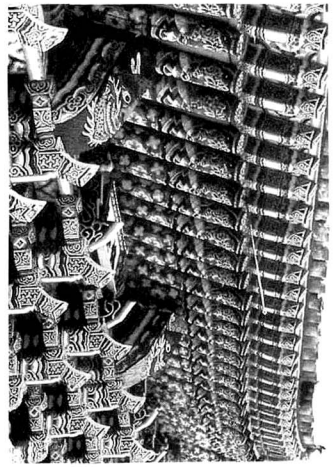


圖 18 연탄 심원사 보광전 정면
공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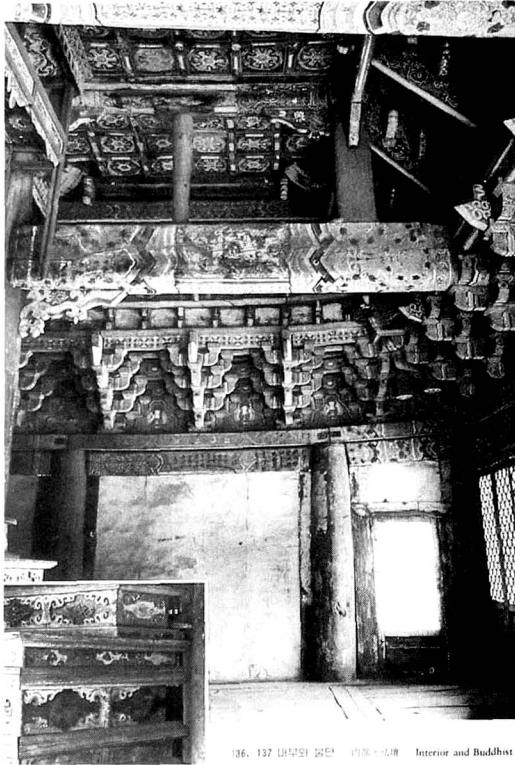


圖 19 연탄 심원사 보광전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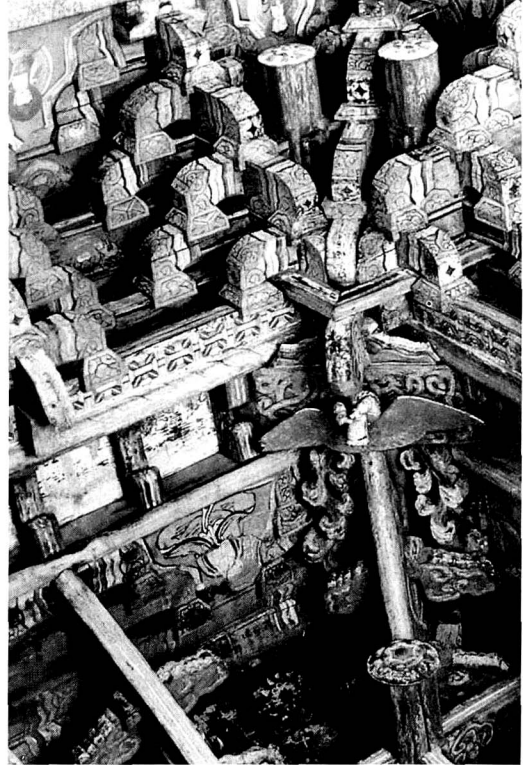


圖 20 연탄 심원사 보광전 내부 귀공포



圖 21 개심사 대웅전 전경(15세기)



圖 22 개심사 대웅전 불상 장엄



圖 23 개심사 대웅전 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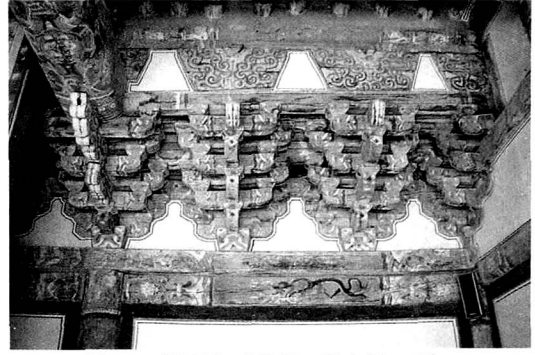


圖 24 개심사 대웅전 내부 공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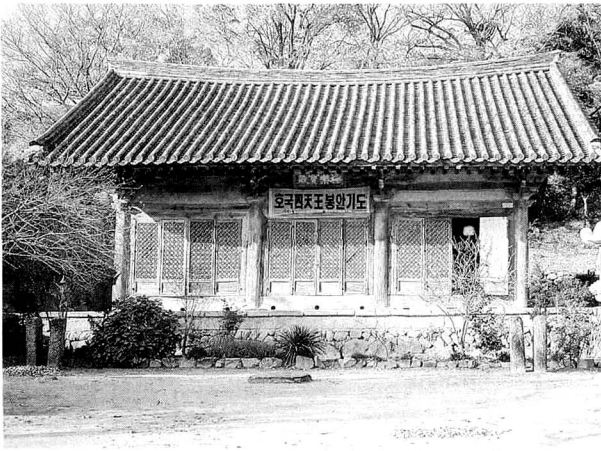


圖 25 무위사 극락전 정면(1430년)



圖 26 무위사 극락전 불상 장엄



圖 27 무위사 극락전 향좌축벽 장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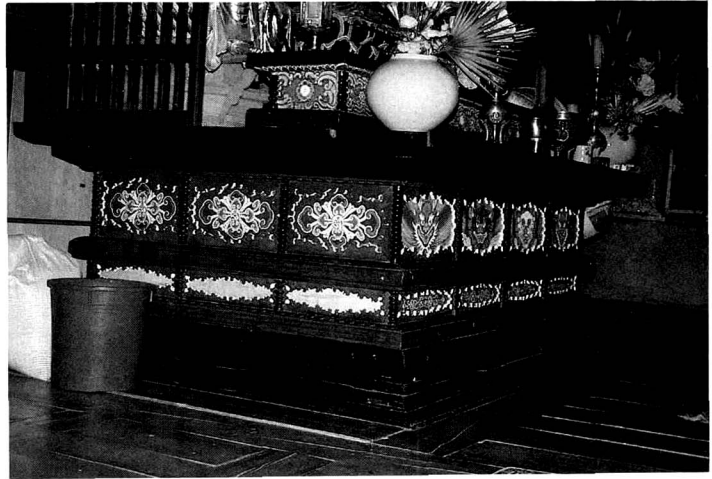


圖 28 무위사 극락전 불단



圖 29 봉정사 대웅전 일곽(15세기)



圖 30 봉정사 대웅전 내부 향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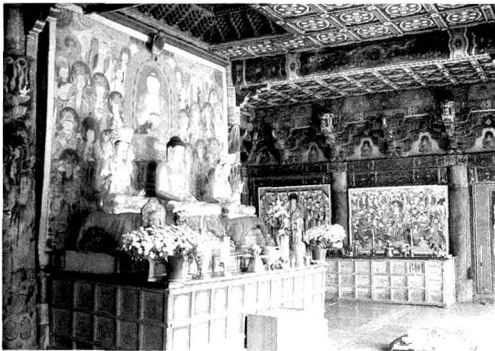


圖 31 봉정사 대웅전 내부 향좌측



圖 32 봉정사 대웅전 천개



圖 33 화암사 극락전 정면(16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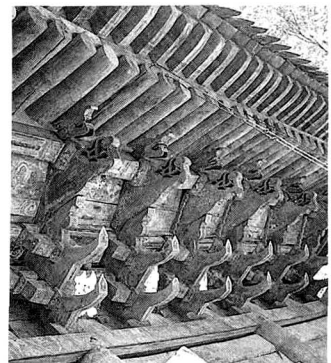


圖 34 화암사 극락전 정면
공포대



圖 35 화암사 극락전 불상 장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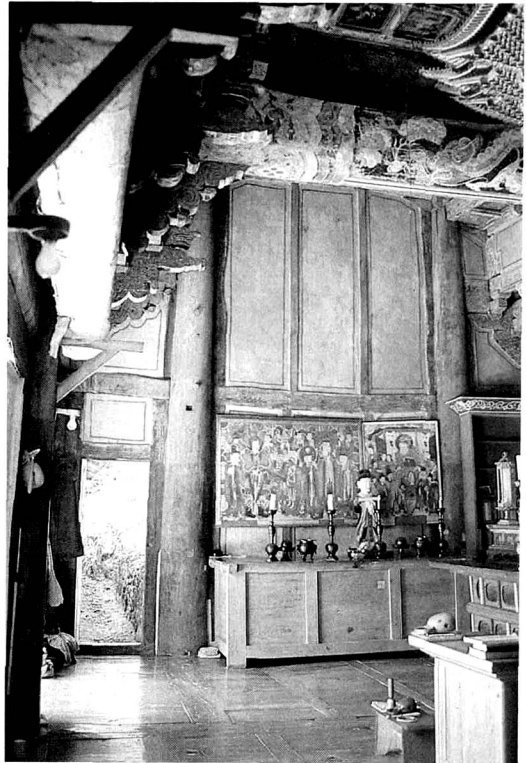


圖 36 화암사 극락전 내부



圖 37 개암사 대웅전 정면(1636년)



圖 38 개암사 대웅전 불상 장엄



圖 39 개암사 대웅전 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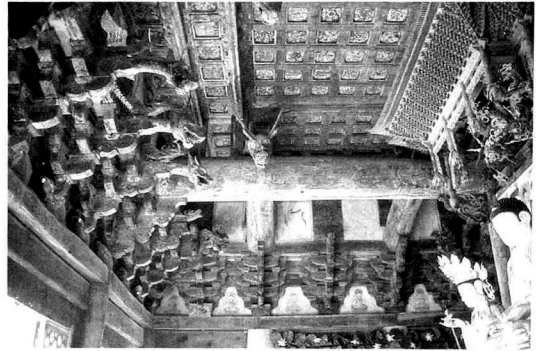


圖 40 개암사 대웅전 천정 조각